4차 산업혁명 발맞춘 '좌종' 탄생

日 불교용품 제작회사, IoT 좌종 개발 나서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불구인 좌종에 첨단 IoT(사물 인터넷)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좌종이 개발된다. 지난 11월 22일 일본의 인터넷 매체 "PR타임즈"는 이 좌종의 개발현황을 특별 보도했다.

IoT(사물인터넷)는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사물에 센서를 부착,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교토에 본사를 두고 있는 불교용품 전문제작회사 '사쿠지마(作島)'는 이 IoT를 사용한 새로운 형태의 좌종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좌종의 이름은 '보살피다'는 뜻의 일본어 '미마모루'와 좌종을 뜻하는 단어 '오링'을 합쳐 '미마모링'이라고 붙였다.

일본의 불자들은 대부분 가정에 불단을 모시고 예불을 올린다. 이 불단에 빠지지 않는 불구가 바로 좌종이다. 사쿠지마사의 사장 사쿠지마 유타카 씨는 "한 스님으로부터 'IoT를 활용한 좌종은 없는가?' 라는 문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때마침 독거노인인 고객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독거노인의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불구의 아이디어 회의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보살피는 좌종 뜻 '미마모루'
울림 감지해 문자 전송 가능
가정 불단 모신 독거노인들
고독사 문제 해결 가능성도
2019년 4월경 출시 예정

회의에서 "매일 예불이나 공양을 올릴 때마다 좌종을 울리는 것이 일상관습"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좌종에 IoT를 접목한 아이디어 스케치가 나왔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실현가능하다는 답이 나오자 개발이 최종 결정됐다.

미마모링은 좌종의 좌대에 센서를 부착한 구조. 좌종이 울릴 때마다 센서가 감지해 독거노인의 가족에게 정해진 문자메세지 등을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사쿠지마 씨는 현 단계에서는 시범제품이 개발, 기존 고객 중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개발될 IoT좌종 '미마모링'의 이미지 사진과 시범제품. 사진출처=PR타임즈

사쿠지마 씨는 "일본에서 연간 약 3만 명의 고독사가 일어나는 등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중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결정했다. 또 "불구인 좌종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매일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다"고 개발의 목표를 발표했다.

시범제품의 영상 공개와 함께 30만 엔(한화 약 300만원)을 목표로 지난 22일부터 펀딩이 시작됐다. 펀딩은 시작한지 겨우 나흘 만에 목표액의 약 42%에 해당하는 12만엔을 달성하는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펀딩을 통해 완성된 제품은 오는 2019년 4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펀딩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스스로 출가자라고 밝히며 "이러한 불구가 생기길 오랫동안 기대해 왔다. 제품이 개발되면 모든 신도들에게 권하겠다"고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두 세대가 함께 살 수 없는 많은 가정에 꼭 필요한 불구"라며 성공적으로 제품화가 되기를 기원했다.

사쿠지마 사장은 "현재 일본의 독거노인은 약 600만 명. 독거노인과 그 가족, 주변인들 모두를 돕는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며 펀딩과 기술개발등 모든 조력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내 정치 생활 근본은 불교"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주지사 임기 2주년 인터뷰

美 본토와 다른 문화수용
연민사상이 정치서 중요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가장 유명한 불자 정치인 중 하나인 미국 하와이주지사 데이비드 이게(David Ige · 사진). 그는 기후변화, 이민자 등 각종 주 현안 해결을 위해 불교 사상을 접목시킨다고 밝혔다. 불교는 그에게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불교 매체 라이언스로어(Lion's roar)는 11월 26일 데이비드 이게의 임기 2주년 기념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자신의 종교가 불교인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시사했다. '르네상스'와 같이 다인종 · 다문화로 구성된 하와이주에서 '불교'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나는 하와이가 본토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한다. 우선 하와이 원주민들은 다른 문화와 이민자 수용에 대해 매우 존중하는 자세를 갖췄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출신에 대해 끊임없이 인지하는 것을 장려한다"며 "나는 항상 불교도였고, 이는 (기독교 문화가 중심인 미국인들에게) 다른 종류의 경험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불교의 '연민' 사상이 정치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모든 사람은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불교 교육은 지역사회의 더 넓은 정서에 반영될 수 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 대한 '연민'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홈리스(homeless) 복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홈리스를 챙겨야 하나'라는 질문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도울 필요가 있고,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그것은 불교 신념과 철학의 핵심 가치로부터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다이어트 전쟁' 선포한 태국 스님들

공양물 서구화 비만 급증
'승려건강헌장' 등도 출간


태국 스님들은 비만 탈출을 위해 최근 다이어트와 전쟁을 선포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스낵류 및 단 음료로 주로 제공되는 탁발 공양물이 지목됐다. 사진출처=AFP

태국 스님들 사이에 때 아닌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다. 매일 아침 탁발하는 스님들에게 올린 공양물이 서구화되면서 비만에 걸린 스님들이 급증했기 때문.

채널뉴스아시아 등 외신이 지난 11월 2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태국 스님들은 비만 탈출을 위해 최근 다이어트와 전쟁을 선포했다. 피핏 사라킷위농(Pipit Sarakitwinon · 63) 스님은 다이어트로 30kg 감량에 성공했다. 산책과 운동을 매일 병행했다는 피핏 스님은 "다이어트 시작 전에는 100m를 걷는 것도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한때 체중이 180kg에 달했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원인은 '탁발'이다. 태국 스님들은 매일 아침 탁발을 해 신도들로부터 공양을 받는다. 태국은 전 국민의 95%가 불교도인 불교 국가로, 태국인들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제공해 선업(善業)을 쌓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공양물이 대부분 스낵류나 단 음료로 제공되다 보니 스님들이 자연스레 비만에 노출됐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태국 스님들은 낮 12시 후 식사를 할 수 없어 오후에는 주로 단 음료만 섭취한다. 이를 과다 섭취한 것이 문제인 것.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골다공증 등 합병증을 불러와 더 심각한 문제다.

이는 정부 차원의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에 따르면 태국은 말레이시아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 비만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태국 스님들은 48%가 비만이며, 이 가운데 42%가 고혈압이다.(출랄롱코른대학교 2016년 실시 조사)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태국 당국은 지난해 12월 승려들의 건강한 음식섭취를 권고하기 위해 '승려 건강 헌장'을 출판하는 등 승려들의 다이어트에 신경 쓰고 있다. 태국 당국은 해당 출간물을 비롯해 승려들에 대한 건강관리 교육이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스님들이 신도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할 이유도 마땅히 없다. 탁발하는 공양물을 가리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현지 관계자는 "어떤 사람들은 스님들에게 담배도 준다. 애연가였던 조상에게 바치는 의미"라면서 "신도들이 스님들에게 음식을 잘 선별해 공양물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스마트 결제로 시주하세요?

中, QR코드 보시 받는 스님… 가짜승려 비판도

인터넷에서 화제로 떠올라



QR코드를 이용한 스마트 결제로 보시를 받고 있는 스님. 사진출처=이존뉴스

스마트폰을 이용해 결제하는 스마트 결제가 일상화된 현대사회. 중국에서 스마트폰으로 보시금을 받는 스님이 화제다. 지난 11월 23일 홍콩의 인터넷 매체 '이존뉴스'는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 화제인 사진을 소개했다.

사진 속에 합장을 하고 앉아 있는 노스님은 '불문제자 명광법사'라고 자신의 법명을 쓰고, 중국에서 탁발을 의미하는 '화연(化緣)'이라는 글자를 크게 쓴 노란색 판을 목에 걸고 있다. 스님의 무릎에는 두 종류의 QR코드가 찍힌 종이가 있다.

사진을 공개한 제보자는 "촬영지는 중국본토의 모처로, QR코드를 찍으니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계좌로 연결됐다"고 전했다.

사진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누리꾼들은 "21세기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탁발법" "스마트 결제로 보시하면 공덕이 포인트로 적립될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시각장애인에게 승복을 입힌 앵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중국내 폭력배들이 사용하는 앵벌이 수법이다. 실제 탁발승들은 직접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찰의 허가 없이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가짜 승려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최근 중국 문화권에서는 탁발승을 가장한 앵벌이나 가짜 승려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몇 년 전 대만에서는 시내 탁발로 유명했던 한 비구니가 실제로는 가짜 승려로 고급 외제차와 귀금속을 소지하던 것이 밝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의돌 도가마을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